

### 선재들의 합창 ②

### 주부신행담

#### 피카소의 남산골 숭거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숭거는 배짱을 담보로 돈을 마구 빌려다 쓴다. 그림병에 걸려서 저승인 지 이승인 지 중간쯤 살고 있다. 여대를 호가하는 그림

당신의 번역을 내가 알고 있지. 피카소는 양호로 그림을 그렸고 이태원 숭거는 바람으로 그린다. 당신은 특별한 친구가 많아서 엉뚱한 짓을 잘도 했는데 술거는 밤마다 하산을 해 봐도 빈잔을 채워 줄 친구가 없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 눈 있는 사람 눈이 있기를 바랄 뿐

이 팔리는 장안에서도 남산골 숭거는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 남산골 숭거한테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은 아마도 현명한 바보일거야. 숭거가 욕심이 없듯이 숭거의 그림을 보고 까치처럼 날아 든 사람들이 있을까. 숭거는 재조상도 알고 피카소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 있는 피카소가 받는다. 남산골 숭거네 집에 놀러온다. 나는 남산골 강이요. 당신은 핏이든지 빚어 돌리는 무덤자요

술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나 있지만 속속들이 숭거를 모르기 때문에 숭거의 그림은 재값을 못 받는다.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숭거는 그림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눈있는 사람들이 눈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이라는 언젠가 가만히 있는게 생명력이야 스스로 구르지 않는 법이야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숭거는 배짱을 담보로 돈을 마구 빌려다 쓴다. 이석조 (서양 화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된 일이지만 두 비구스님은 주지스님의 소임을 맡지 않으려고 웃은 일을 하면서 우리 천마대활원에 숨어 계셨던 것이다. 수소문 끝에 송광사의 방장스님이 서화 두 점을 보내 주시게 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후 나는 수행자의 몸은 자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소위 재학원 원장이라는 벼슬(?)에 대해서도 뛰어들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원장 벼슬만으로는 불제자로서의 도로로 소외받은 이의 따뜻한 동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재학원 원장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전에 나와 인연이 되었던 병식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병식은 만 십이세라고 하나 쉼없는 체력과 한쪽 다리에 마비증상을 가지고 바깥마를 사내이로 내게 다가왔다. 열정적인 유려함이 갑자기 깨어진다든지, 한 여름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또는 엉뚱한 연탄불이 꺼졌다고 하면 그 대부분은 병식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병식은 전생의 어떤 과보에서인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알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워낙 말쑥꾸러기였던지라 자연히 나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그러던 어느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또래의 아이들과 귀여운 음성으로 아주 빠르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순간 나에게 병식이 산천적인 정신박약이 아니고 어릴때 한쪽 다리의 심한 화상으로 인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으로 어떤 망각증세를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 입원한 병식을 보며 컴퓨터 촬영과 '연탄 천장'을 두고 망설이는데 창가에는 눈발이 훑날리고...

다. 그때부터 나는 그애의 회복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거르기 일수였던 기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다. 사실 그 시절의 내 생활은 재학원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내에 나가는 일에 무신경해져 있었다. "내게 급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결국 부처님을 찾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부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을 안하던 병식이 내가 말을 시키면 불편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아주 느리게 "어머니"라 말하고 대답도 골똘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수선한 일과 중에도 병식이

와 맞닥뜨리면 반드시 '어머니'란 말을 시키고 다리운동도 하게 하면서 그애의 회복을 기원했다. 세월은 바쁘게 사오년이 흘러갔다. 눈에 띄는 호전은 없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병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물이 점차로 수척해져서 큰 병원에 진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식은 의뢰보대상자로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뇌의 컴퓨터 촬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촬영금액이 대략 당시의 연탄 천장값 정도였다. 요즈음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컴퓨터 촬영과 연탄천장을 두

고 망설이는데 저만치 창가에는 눈발이 훑날리고 바람까지 매섭게 불고 있었다. 괴로운 눈물을 감추려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며칠간의 우여곡절 끝에 병식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컴퓨터 촬영과 여러가지 조사결과 뇌의 대사장애 일종으로 뇌세포에 계속적으로 영양결핍 상태가 발생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되었다. 순간 부처님이 원망스럽게까지 하여 왜 이런 불행한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까지 감수하게 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다. 많은 아이들 중 병식에 대한 편애를 두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도 해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이러저러 구한 알부민 주사와 세병맞은 후 병원측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고 중환자실로 갔을 때 그애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육사가 간신히 담요를 벗겨보니 뜻밖에도 잠난기 쉬운 미소뿐 얼굴이 나타났었다. 두 주먹을 꼭쥐고 있기에 손바닥을 한들게 펴보니 동전 몇개가 한쪽 손바닥에서 나왔고 다른쪽은 동전만큼 꼭꼭집은 것이었다. 펼쳐본 종이는 남자가 보보하는 내용을 그린 민화그림이었다. 부끄러워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던 그애에게도 인간본능과 회노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연 (부산 천마재학원 원장)

◆ As a beast unbound in the forest goes feeding at pleasure, so let the wise man, considering only his own will,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술거의 자유로운 짐승이 먹이를 구하러 가듯 지혜로운 이는 그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There is a constant calling in

the midst of company, both when sitting, standing, walking, and going away; but let one, looking only for freedom from desire and for following his own will,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동료들 속에 있으면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여행할 때조차 항상 지나치게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홀로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There is sport and amusement in the midst of company, and for children there is great affection;

동료들 속에 있으면 거기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라에 대한 애정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싫거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He who is at home in all the four regions and is not hostile to any one, being content with this or that, overcoming all dangers fearlessly, let him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대로 라,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해 하라.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조금도 두려워 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unbound' 제외한, 자유로운 'hostile' 적의있는, 비우호적인

한영우 기자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불-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 전문 지식**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일합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리스 사용** 각기 다른 강도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박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강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올해도 연료비가 작게들어 경제적인 귀뚜라미보일러 터를 푹푹히 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황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흠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 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바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바너

감압통풍식 3PASS구조 바너는 송풍장치 없이도 노력이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황형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황형보일러

황형보일러는 비닐하우스 용이기에 빛과 열이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 황형보일러 보일러의 안전 1호기로서 최상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황형구조로 단열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용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리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보일러의 안전 1호기로서 최상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황형구조로 단열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용에 적합합니다.

대표전화 : 02) 798-5126